

## 建築文化新聞의 창간과 建築士誌의 변화

Launching 『Architectural Culture paper』 and changing of 『Korean Architects』

본 협회의 예산승인 후, 3개월여의 준비 끝에 가칭 『건축문화신문』은 8월에 시험판을 내고 9월 중에 창간호를 내기로 하였으며, 방송은 신문 창간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건축사』지는 신문에게 전반적인 기능을 양허하고 작품위주의 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하였다.

세계는 바야흐로 인터넷시대이다. 2002년도에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월드컵의 붉은 악마, 호순 양의 교통사고로 유발된 반미촛불 집회 그리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의 인터넷 파워를 경험하였다. 이제는 어디서나 초고속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가 사회근간을 이루는 중이다. 방송과 인터넷, PC와 핸드폰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스피디한 세상에 우리는 일간도 아닌 주간으로 활자매체인 건축신문을 발간하려 한다.

IMF 이후 건축사 양산 정책과 수주량의 감소로 우리는 생존 자체를 걱정한지 오래다. 이러한 와중에서 건설회사의 설계겸업 논란, 감리권의 분할, 설계비 기준대가의 파기 등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해왔으나 이를 호소할 매체가 잡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위와 같이 편협한 사고에 젖은 정부와, 건축을 부동산의 재산 가치로만 인식하는 국민들 틈에서 고립무원이 되었다. 본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를 대안(代案)으로 설득하며 국민의 건축문화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건축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하나로 만드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건축문화신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태어나고자 한다.

첫째, 범 건축계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두어 FIKA 3단체 등에 위촉할 예정이다.

둘째,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기사의 작성을 위해 '건축사 기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대학에는 학생기자를, 해외각국에는 건축사나 석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주재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설계뿐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 등 시공기술적인 면과 새로운 자재의 소개는 물론 유관분야 즉 인테리어, 조경, 조명, 도시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공간을 주기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

넷째, 독자층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건축사』지의 경우 지금까지 회원과 교수 그리고 시군(市郡)의 건축과에 비매품으로 제공되었으나, 이제 FIKA회원은 물론 예비건축가들인 건축사보나 학생들, 건축직 공무원, 건설회사를 비롯한 주택공사, 주택협회, 자재협회 등 유관부서원들 모두가 독자가 되는 신문을 제작하고자 한다.

다섯째, 인터넷과의 결합으로 쌍방향 신문이 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모든 신문이 하는 것으로 향후 본 『건축문화신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방송국까지 설립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여섯째는 재정적 독립이다. 본지는 본 협회로부터 향후 2년간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자 한다. 물론 협회의

간접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중국적으로 유가지(有價紙)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가지로 발행하는 2년간 건축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구독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이며 유익한 신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문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건축계 소식을 종합적으로 접하게 하며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쟁점과 미래지향점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구하고 알리는 장이 되는 것과 이것이 정부정책일 경우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찰시킨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건축문화 고양이다.

필자는 모두(冒頭)에서 인터넷 시대에 신문의 약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디지털부문 부사장 니센홀츠의 말처럼 '신문은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하며 젊은이들의 경우 단순히 즐길 줄 아는 시민에서 자질을 갖춘 시민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 한다. 건축문화신문의 경우 이를 인용할 때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하여 건축인들이 올바른 진단을 하게하고 이를 정부정책의 오류 등에 적극 활용하며 건축학도들에게는 책임 있는 건축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 이 되는 것이다.

현대는 모든 것이 다기화, 세분화되고 있다. 모든 잡지와 전문지도 이에 따라 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영향력 있는 메이저 신문들은 독자들의 보편타당성에 의한 열독 숫자 즉 인기 순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값 동향은 전 국민의 관심이기에 반복적으로 자주 대서특필되고, 바둑의 경우도 수백만의 마니아가 있어 1주일에 한 면은 정기적으로 할애되고 있지만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것은 관심 밖이기에 우리들의 목소리는 끼어 들 데가 없다는 현실이다.

건축을 예술 문화로 인식하여 사랑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건축 문화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빨이 없으면 입염으로 먹으라는 속담이 있다. 메이저신문이 안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건축사』지에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아파트에 이사하여 겪는 불편함을 쓴 것인데, 도서실, 유치원, 체육시설 등의 미비와 차로 인한 어린이의 위험성 등을 말하고 있었다. 실상 차량의 문제는 차 없는 지상을 만들기에 민간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문제는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지만 규모를 축소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는 통에 아파트 숲만 이루고 공공시설은 어디에도 없어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일정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그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세대수의 합계가 기간 면제받았던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 세대수에 이를 경우 정부든, 건설업체든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 개정을 유도했을 것이다. 직할시의 환경연합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정보에 어둡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이 너무나 많으며, 기간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았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수준을 일정한 곳까지 끌어 올릴 때, 메이저신문은 우리의 주장을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문화신문의 발간은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 수레바퀴의 한축이라면 위와 같은 대국민 계도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수레바퀴의 한축이 될 것이다.

함께 물주고 거름 주어 관(官)도 경청하고 민(民)도 성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자. ㅁ